

7 일본 다카이치 내각, '일본성장전략' 발표

⇒ 일본 성장전략회의*는 중장기 경제 성장 및 '강한 경제' 구축을 목표로 산업 투자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투자 계획을 정리한 일본성장전략**을 발표('26.7)

* 日本成長戦略会議: 일본 다카이치 내각이 '강한 경제' 실현과 국력 강화를 목표로 '25년 11월 설치한 일본성장전략본부 산하의 정책·전문가 회의로, 17개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대규모 관민 투자와 임금 인상을 이끌어낼 경제 성장 전략을 논의·책정하는 역할을 수행

** 日本成長戦略

- (개요) 17개 전략 분야 및 하위 62개 주요 제품·기술에 대해 공공·민간이 연계해 '40년까지 총 370조 엔을 투자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제시

※ 성장전략회의는 17개 전략 분야에 걸쳐 62개 주요 제품·기술을 ▲경제 안보 등의 관점에서 위험 완화 필요성 ▲해외 시장 확보 가능성 ▲기술 혁신성 등을 고려해 결정

- 이에 더해 '40년까지 민간 부문 자본투자 250조 엔을 달성하고, 성장전략의 효과로 명목 GDP를 1,100조 엔에 근접하게 끌어올린다는 목표도 설정
- 정부가 공적 자금을 활용해 투자하고, 이를 통해 민간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17개 전략 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높인다는 전략

- (주요 내용) ▲17개 전략 분야에서 공공·민간 연계 투자 추진 ▲8가지 범분야적 과제 해결 ▲미래 투자 확대 실현이라는 3가지 축을 중심으로 세부 전략을 수립

- (17개 전략 분야 투자) 17개 전략 분야 및 62개 주요 제품·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해 전 세계 공통의 위험 해결에 기여하는 제품·기술을 제공하고, 과학기술 및 혁신 분야에서 우수성을 확보한다는 구상

- 특히 퍼지컬AI에 대한 집중 투자와 '지역 미래 전략'*과의 연계 추진을 강조

* 地域未来戦略: 일본을 여러 권역으로 나누어 반도체, AI, 녹색전환(GX) 등 17개 첨단·전략 산업의 거점을 육성하고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일본성장전략과 함께 결정

※ 62개 주요 제품·기술 각각에 대한 관민 투자 목표, 미래 비전, 과제 및 정책 수단 등에 대한 세부 설명은 별도의 로드맵(戦略17分野における「主要な製品・技術等」)에서 확인 가능

〈 17가지 전략 분야와 62개 주요 제품·기술 〉

17개 분야	주요 제품 및 기술	17개 분야	주요 제품 및 기술	17개 분야	주요 제품 및 기술
1. AI · 반도체	• 피지컬 AI • 반도체 • 버티컬 AI(도메인 특화)	7. 해양	• 무인 해양 차량 (해상 드론) • 해양영역인식(MDA) • 혁신적인 해저 개발 기술·시스템	12. 자원·에너지 안보·녹색전환 (GX)	• 차세대 태양 전지 • 수소 등 • 친환경 철강(중복) • 차세대 지열 에너지 • 해상 풍력 발전 • 차세대 첨단 원자로 • 화학 산업 GX
2. 디지털 기술 및 사이버 보안	• 데이터 플랫폼 • 국가·지방 정부를 위한 안전한 AX/DX 인프라 • AI 시대를 위한 첨단 보안 제품 및 서비스 •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에너지 저장 시스템 •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에 최적화된 헬스케어 DX 인프라 • 자율 주행 기술	8. 조선	• 차세대 선박 • 선박 수리 • LNG 운반선	13. 핵융합	• 핵융합 에너지
3. 정보 통신	• 전광 네트워크(APN) • 해저 케이블 • 차세대 무선 기술 (비지상 네트워크, 5G/6G 등)	9. 소재	• 영구 자석 • 친환경 강철 • 혁신적 금속 부품 • 저탄소 금속 부품 • 1차 원료(광석 등) 및 2차 원료(재활용 재료 등 순환 자원)제련·분리·정제·해체·분류 기술 • AI 등을 활용해 개발된 새로운 복합 재료	14. 재난 관리 및 국가 복원력	• 재난 관리 기술
4. 양자 기술	• 양자 컴퓨팅 • 양자 통신·네트워크 • 양자 센싱	10. 합성 생물학 및 생명공학	• 바이오 제조 • 바이오 의약품 및 재생 의료 제품 등	15. 항만 물류	• 항만 화물 처리 장비 • 항만 물류 디지털 전환 • 차세대 창고
5. 방위 산업	• 소형 무인항공시스템 • 해군 함정 • 이중 용도 기술	11. 신약 발견 및 첨단 의료	• 동종 분야 최초·최고 제품(의약품 및 재생 의료 제품) • 감염성 질환 대응 제품 • 바이오 의약품 및 재생 의료 제품 등(중복) • AI·로봇 등 혁신 기술 기반 첨단 의료기기 • 개인 데이터를 활용한 헬스케어 관련 서비스	16. 푸드 테크	• 식물 공장 • 육상 양식 • 식품 기계·설비 • 미래 식품
6. 항공 · 우주	• 차세대 민간 항공기 • 무인항공시스템 • 첨단 항공 모빌리티 • 로켓 및 발사 기지 • 인공위성 서비스 • 달 탐사 및 저궤도 기술			17. 콘텐츠 산업	• 게임 • 애니 • 만화 • 음악 • 실사 영화

- (8가지 범분야적 과제 해결) 8가지 범분야적 과제를 해결해 투자를 가로막는 병목을 해소하고, '지역 미래 전략'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을 제시

〈 8가지 범분야적 과제와 주요 사업 추진 계획 〉

구분	핵심 목표(KPI)	주요 사업(일부 예시)
1. 신유형의 기술 주도 국가 경쟁력 강화	• '40년까지 국내 투자 250조 엔 달성 • '26년부터 '30년까지 민관 합산 연구개발 투자 총액 180조 엔 달성	• 일본이 직면한 국가적 리스크 및 사회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위기관리 투자) 및 전략 분야 투자(성장투자) 추진 - '일본 열도를 강하게, 풍요롭게' 만드는 투자 프레임 구축 • 높은 수준의 연구 역량을 보유한 핵심 대학 그룹 지원 - 특정 분야에서 높은 연구 역량을 가진 대학 인증 시스템을 수립하고, 이들 대학의 연구개발 및 사회 구현을 위해 중·장기적 지원을 제공 • 창업을 위한 시드 단계부터 출구 단계까지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리드 인베스터를 육성하고, 스타트업으로부터 조달을 가속화
2. 스타트업	• 스타트업 수 '25년 2만 5,000개에서 향후 10만 개로 확대	• '종합 스타트업 창업 및 스케일업 패키지' 시행 - 연구개발 단계부터 스타트업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 제공 - 수익 창출이 가능한 위탁 계약을 통해 실제 환경에서 시범 운영 및 실행이 가능한 프레임워크를 구축(중소기업기술혁신(SBIR) 제도 강화)
3. 금융을 통한 잠재력 발휘	• '40년까지 국내 투자 250조 엔 달성	• '성장 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 서비스 전략' 시행 - '민간 전략적 투자 파트너십 포럼'(가칭) 설립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자금 제공 및 성장 지원 역할 강화 - '지역 미래 금융 액션플랜'(가칭) 등을 추진해 지역 금융 역량 강화 • 성장 지향적 기업 거버넌스로 전환
4. 인재 육성	• 과학·공학·농업, 디지털, 의료 분야 입학 정원 확대: '24년 35% → '40년까지 50%	• 기본 경비 확충 및 연구비 지원 다양화 - 대학법인 운영비 지원금 및 과학연구비 지원금 대폭 확대 • 대학·기관의 과학기술 인재 육성 강화 - 과학기술 분야에 맞춘 대학 학부 교육과정 재편성 지원
5. 노동시장 개혁	• 5년 간 노동 생산성 (근로자 당 부가가치) 15% 증진	• 근로시간 관련 법규를 재검토해 유연하고 다양한 근무 형태 촉진 - '26년 여름부터 노동정책회의를 통해 근로시간 관련 정책 방안 논의 • 17개 전략 분야 및 기반시설 분야에서 재교육 및 역량 강화 지원 확대
6. 가사일 등 부담 경감	• 첫 아이 출산 전후 여성의 고용 지속률 개선: '21년 69.5% → '30년까지 80%	• 육아·돌봄과 일의 균형을 위한 지원 제공 - 가사 도우미 서비스에 대한 국가 자격 인증 제도 도입 - 가사 도우미 및 베이비시터 서비스 이용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지원 방안 검토
7. 임금 인상 환경정비	• '29 회계연도까지 실질 임금 연간 약 1% 상승	• '노동공급제한사회에서 중소기업 수익력 강화 전략' 시행 - 보조금을 활용해 임금 인상 촉구 - 적극적으로 임금을 인상하는 중소기업 중점 지원 방안(세제 등) 검토 - 중소기업 M&A 지원 제공자(개인) 자격 제도의 창설(법제화) 검토 등
8. 사이버 보안	• '31년 말까지 필수 기반시설 업체 100%가 필요한 보호 조치 구현	• '사이버보안 전략'('25년 12월)에 따른 구체적인 조치 이행 - 능동적 사이버 방어 시스템 구축 - 필수 기반시설에서 기본 조치 이행을 보장하는 통일된 기준 수립·시행

- (미래 투자 확대) 투자 기반 및 실행체계 강화 전략으로 ▲‘일본 열도를 강하게, 풍요롭게’* 만드는 투자 프레임 구축 ▲관민 협력 강화 ▲PDCA 메커니즘** 구축 ▲전략적 홍보 등도 강조

*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내건 정치 슬로건으로, 적극재정을 통한 미래 투자를 강조

** 계획(Plan), 실행(Do), 점검(Check), 개선(Act)을 반복하며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방법

〈 미래 투자 확대 실현 〉

구분	주요 내용
‘일본 열도를 강하게,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투자 프레임 구축	• 연간 예산 제약과 별개로 ‘상한선’을 두지 않고 다년간의 장기적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별도의 세출 편성 틀 마련 • 국내 민간 자본투자자 및 잠재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큰 조치들이 대상
관민 협력 강화	• ‘투자 견인형 경제’로 사고방식 전환
PDCA 메커니즘 구축	• 일본성장전략회의가 육하원칙을 염두에 두고 PDCA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17개 전략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정기적으로 검토·조정
전략적 홍보	• 성장전략을 기업·국민의 행동 변화로 유도하기 위한 홍보·소통 실시

출처 : 일본 내각부 (2026.7.21.)

<https://www.cas.go.jp/jp/seisaku/nipponseichosenryaku/pdf/jgs2026.pdf>